

주간 전남농업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March

VOL. 226

주간 기상전망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전남 친환경 기능성 쌀 미국
수출길 올라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박과 작물 바이러스
“초기 진딧물 방제 중요”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전남 농기원, 기능성 차나무
우량 묘목 분양 신청

전남 시군 농정 동향

곡성군, 소규모 농가 저온
저장고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2019년
3월 넷째주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2~ 7도, 최고기온 : 13~ 16도)과 비슷함
- ▶ 강수량은 평년(1 ~ 4mm)보다 적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토마토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 방울토마토(대추)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 오이(취청) 출하전망 가격전망
- ▶ 애호박 출하전망 및 생산전망
- ▶ 풋고추(일반)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4

- ▶ 김현수 차관, 김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논의
- ▶ 전남 친환경 기능성 쌀 미국 수출길 올라
- ▶ 고흥간척지 쌀, 고품질로 해외 수출 물꼬 터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8

- ▶ 박과 작물 바이러스 “초기 진딧물 방제 중요”
- ▶ 봄철 관리 잘 한 ‘뽕밭’에서 품질 좋은 오디 난다
- ▶ 한국인 입맛 사로잡을 ‘느타리’ 삼형제
- ▶ 원예작물 육묘장 관리, 1년 농사 좌우한다
- ▶ 국산 아카시아꿀·밤꿀 피부 수분 유지 효과

6. 정책 동향 23

- ▶ 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4

- ▶ 여수시, 벼 해충 ‘억노린대’ ‘방제철저’ 당부
- ▶ 여수시, 유용미생물(EM) 무상 공급
- ▶ 나주시, 유기농 실천 및 논 타작물 재배 다짐 결의
- ▶ 담양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장학금 100만 원 기탁
- ▶ 곡성군, 소규모 농가 저온 저장고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 ▶ 곡성군, 올해 축산 분야 보조사업 상반기 완료 목표 신속 추진
- ▶ 곡성군, 명품 켄달로프 멜론으로 농가 소득 향상 기대

- ▶ 해남군, 친환경 농업 유용미생물 무상공급‘호응’
- ▶ 함평군, “농작물 저온피해 대비하세요”
- ▶ 장성군, 과수 화상병 없는 청정지역 지킨다.
- ▶ 완도군, 친환경 약제를 이용한 칩덩굴 제거 총력

8. 해외 농업정보 35

- ▶ 베트남 돼지열병 현황 및 소비시장 변화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3. 25. 시카고 선물거래소)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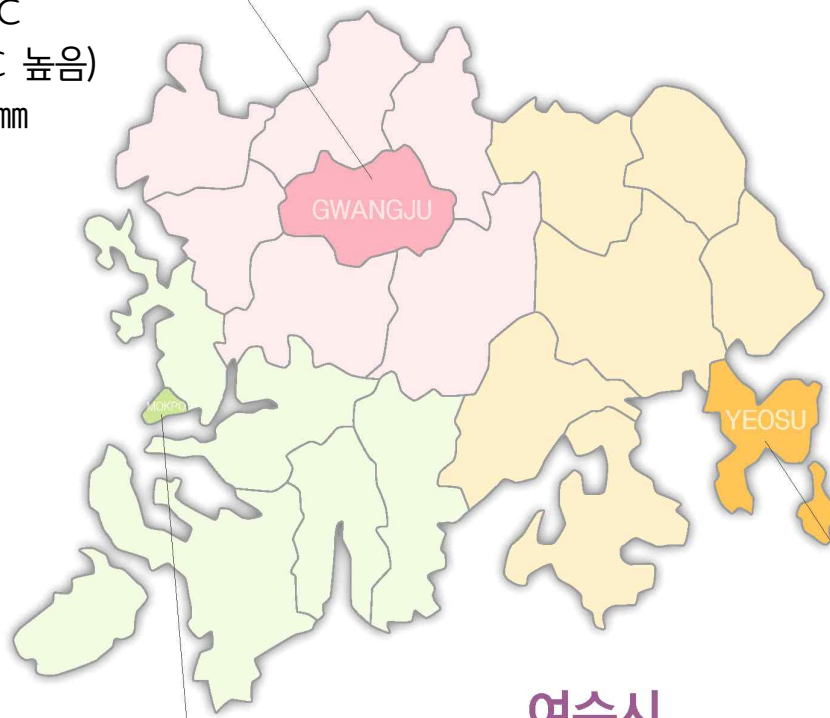
- ▶ 전남농기원, 기능성 차나무 우량 묘목 분양 신청
- ▶ 다채로운 우리 술 만나는 자리 마련한다
- ▶ 농업 현장 문제, 맞춤형 상담으로 해결한다
- ▶ 농촌진흥청, 맞춤형 교육으로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 ▶ 전남도, ‘로컬푸드 안심하고 드세요’
- ▶ 전남도, 우수 종묘 보급기반 조성 껴걸음

10. 농식품 빅데이터(관측)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44

- ▶ 농촌진흥청 농사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9.9℃
(평년대비 2.2℃ 높음)
- 최고기온 : 15.6℃
(평년대비 0.4℃ 높음)
- 최저기온 : 4.1℃
(평년대비 0.3℃ 높음)
- 강 수 량 : 1.6mm



목포시

- 평균기온 : 8.9℃
(평년대비 0.5℃ 높음)
- 최고기온 : 13.1℃
(평년대비 0.7℃ 낮음)
- 최저기온 : 4.7℃
(평년대비 0.3℃ 높음)
- 강 수 량 : 1.5mm

여주시

- 평균기온 : 10.6℃
(평년대비 0.9℃ 높음)
- 최고기온 : 14.9℃
(평년대비 1.0℃ 높음)
- 최저기온 : 6.3℃
(평년대비 0.2℃ 높음)
- 강 수 량 : 2.1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마토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3월 출하량 전년보다 2% 감소 전망

- 3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북 군위, 전남지역은 전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증가하였고, 전남 화순과 충남 논산에서는 정식 초기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생육 부진으로 작기를 일찍 종료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4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영남·호남지역은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늘어난데다, 충남은 기상 악화로 작기를 조기에 종료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가격전망 : 3월 가격 전년 보다 높을 전망

- 3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1만 1,300원)보다 높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2천~1만 5천 원으로 전망된다.

방울토마토(대추)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3월 출하량 전년보다 1% 증가 전망

- 3월 출하면적은 충청에서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 조기 종료로 감소하나, 호남은 신규 재배 및 대추형으로의 작목 전환으로 정식면적이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 3월 출하량은 주 출하지역인 충청·호남의 작황 호조로 단수가 2% 증가하여 전년보다 1%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 3월 가격 전년 대비 강보합세 전망

- 3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다소 증가 하나, 소비대체재인 원형 방울토마토 출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1만 3,500원) 대비 강보합세인 상품 3kg 상자에 1만 3천~1만 6천 원으로 전망된다.

오이(취청)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출하전망 : 3월 출하량 전년보다 10%증가 전망

- 3월 취청오이 출하면적은 전남 구례에서 전년보다 생육이 좋아 출하면적이 증가하고 순천·여수의 시설 면적 확대와 작목전환으로 전년보다 4% 증가할 전망이다.
- 3월 출하량은 출하비중이 큰 전남의 기상 호조로 단수가 6% 증가하여 전년보다 10% 늘어날 전망이다.

가격전망 : 3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3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3만 1,700원)보다 낮은 상품 50개에 2만 3천~2만 6천 원으로 전망된다.

애호박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출하전망 : 3월 출하량 전년보다 10% 증가 전망

- 충북 청주에서는 시설 면적 증가, 오이, 감자 등에서의 작목 전환, 조기 정식으로 출하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 구례에서는 취청오이에서 애호박으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늘어 출하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3월 애호박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10%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전망 : 3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3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와 주키니호박 가격 약세의 영향으로 전년(2만 8,700원)보다 낮은 상품 20개에 1만 2천~1만 4천원으로 전망된다.

▶ 풋고추(일반)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3월 출하량 전년보다 2% 감소 전망

- 3월 일반풋고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일반풋고추 가격이 낮아 홍고추로 출하하려는 농가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3월 단수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전년과 같은 한파 피해는 없었으나, 겨울철 낮은 가격으로 인한 농가의 관리 소홀로 작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격전망 : 3월 가격 전년 대비 강보합세 전망

- 3월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5만 4,400원) 대비 강보합세인 상품 10kg 상자에 5만 4천~ 5만 8천원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9. 3. 25.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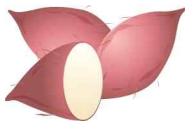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20kg	49,380	49,440	↑	1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380	44,050	40,200	↑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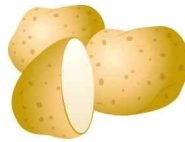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35kg	189,200	188,000	↑	8.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4,320	174,200	154,200	↑	22.7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10kg	34,000	36,800	↓	7.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520	36,550	26,947	↑	26.2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20kg	31,800	33,000	↓	48.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1,600	61,650	33,360	↓	4.7

채소류

배추(월동)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10kg	3,700	3,800	↓	59.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32	9,125	7,875	↓	53.0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8kg	4,000	4,300	↓	4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92	7,075	6,012	↓	33.5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100개	46,667	53,333	↓	14.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5,333	54,833	54,441	↓	14.3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20개	16,000	18,600	↓	46.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560	30,050	22,773	↓	29.7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60kg	1,177,200	1,177,200	↑ 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77,200	1,150,000	743,600	↑ 58.3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10kg	57,800	69,800	↓ 9.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9,080	63,550	54,597	↑ 5.9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20kg	135,000	130,000	↓ 3.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5,000	140,000	140,000	↓ 3.6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20kg	14,200	13,200	↑ 14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360	16,800	19,064	↓ 25.5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20kg	25,600	23,600	↑ 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80	24,000	23,333	↑ 9.7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1kg	1,160	1,240	↓ 3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76	1,675	1,887	↓ 38.5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5kg	24,600	22,400	↓ 15.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520	29,250	27,070	↓ 9.1

딸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2kg	16,200	17,200	↓ 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240	16,450	16,850	↓ 3.9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10kg	33,800	33,000	↑ 27.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9,000	26,500	31,227	↑ 8.2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5kg	28,400	26,600	↑ 4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3,080	19,900	23,290	↑ 21.9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10kg	39,400	38,600	↓	7.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760	42,350	41,250	↓	4.5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15kg	50,600	50,600	↑	99.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120	39,300	41,647	↑	21.5

참다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2kg	35,400	35,200	↓	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360	35,600	34,633	↑	2.2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100g	7,912	7,894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871	7,926	7,214	↑	9.7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1kg	5,295	5,436	↑	10.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603	4,776	5,607	↓	5.6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30kg	496,200	496,200	↓	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6,200	498,000	524,667	↓	5.4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2kg	11,600	11,000	↓	6.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280	12,400	12,143	↓	4.5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2kg	6,800	6,800	↓	14.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000	7,950	8,420	↓	19.2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100g	1,725	1,712	↓	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12	1,796	1,890	↓	8.7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30개	4,855	4,639	↑	4.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603	4,647	5,791	↓	16.2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25)	1주일전 (3/18)	전년대비	
1L	2,620	2,621	↑	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1	2,516	2,541	↑	3.1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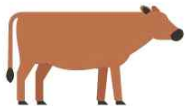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3. 25. 기준 /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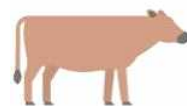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552	5,648	5,729	↓ 1.7	↓ 3.1
거세	6,575	6,664	6,647	↓ 1.3	↓ 1.1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177	3,181	3,119	↓ 0.1	↑ 1.9
수	3,660	3,676	3,753	↓ 0.4	↓ 2.5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684	3,591	3,54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6	↑ 3.9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00	386	18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6	↑ 122.2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45	329	35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9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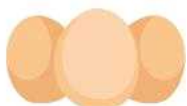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660	1,500	1,61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0.7	↑ 2.6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747	656	71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3.9	↑ 4.3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3,05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27.9



김현수 차관, 김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논의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019년 3월 21일 오후 4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점검회의에는 김치 수출업계 및 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여, 최근 발표한 ‘김치산업육성방안’이 내수시장에서 외국산과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점을 보완하고, 김치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은 김치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급부터 신규 시장 개척에 이르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과 업계 역할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김현수 차관은 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수출업체·농가,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 “농식품부는 인삼, 파프리카 등 주요 품목별로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친환경 기능성 쌀 미국 수출길 올라

- 고품질 가바 쌀 20톤 첫 선적 기념행사 가져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해남군은 친환경 가바쌀 20톤(1천 300포대/10kg 포장 기준)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 국내 쌀 소비시장은 전년도 1인당 쌀 소비량이 1인당 61.0kg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현 추세가 지속될 시 향후 10년 간 연평균 24만 톤씩 초과 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해남을 비롯한 곡성, 장성 등 도내 3개소에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를 조성 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쌀 판매확대를 위해 해외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 특히, 이번에 수출하는 쌀은 해남 현산면과 계곡면 일대에 조성한 82ha의 수출쌀전문 생산단지에서 생산한 품종으로 혈당조절, 혈압강하,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아미노산인 가바(GABA) 함유량이 일반쌀보다 8배 이상 높게 포함되어 있는 특수미로, 해남군과 농산물 수입판매 전문회사인 'T-GRAIN' 사이에 '해남쌀 및 농특산물 수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100톤 이상의 쌀을 미국 등지로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 일반쌀에 비해 1.5배 가량 높은 가격에 수출, 미국 내 16개 마켓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고급쌀 소비층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 김성일 전남농업기술원장은 “해남군의 ‘기능성 친환경 가바쌀’ 수출을 축하하며, “잘못된 식습관으로 당뇨,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이 높은 미국 소비자들이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바쌀과 같은 기능성 쌀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고 있어 수출 전망도 높다”면서, 전남 쌀의 위상제고와 함께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쌀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출 쌀 생산단지 임영섭 대표는 “농업기술원과 해남군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아 해남에서 생산한 쌀을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연간 100톤 이상의 쌀 수출을 목표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단지를 조성하고, 재배기술을 표준화 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미국에 이어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까지 수출국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한편 전남농업기술원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을 통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전남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을 250톤 이상 수출해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고흥간척지 쌀, 고품질로 해외 수출 물꼬 터

- 흥양농협 해맞이 쌀 20톤, 몽골 수출길 올라 -

-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비옥한 간척지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미질을 인정받아 흥양농협의 해맞이 쌀 20톤이 몽골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 흥양농협은 몽골 톨투시인터내셔널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5일 광양항을 통해 해맞이 쌀 20톤을 전량 수출하였고, 향후 몽골 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협약 체결로 수출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몽골로 수출된 흥양농협의 해맞이 쌀은 청정지역 해창만 간척지에서 생산되어 미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아 품질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흥양농협은 고흥쌀의 뛰어난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고품질 고흥쌀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쌀은 물론 유자, 김 등 고흥 농수특산물의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흥군

☀ 박과 작물 바이러스 “초기 진딧물 방제 중요”

- 농촌진흥청, 호박 · 오이 등 시설재배 농가에 방제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호박, 오이 등 박과 작물 바이러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바이러스에 감염된 박과 작물 잎은 모자이크나 황화, 엽맥 녹색 띠가 나타나고 열매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변해 상품성이 떨어진다.
- 지난 3년간 경기, 강원, 전북, 부산을 중심으로 호박과 오이 시설재배 농가의 바이러스 관련 민원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전 세계적으로 박과작물에서 나타나는 바이러스는 153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9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돼 있다.
- 피해를 줄려면 우선, 바이러스가 발생한 재배지에서 박과 작물의 연속 재배를 피해야 한다.
- 즙액이나 복숭아혹진딧물 등 진딧물에 의해 쉽게 전염되므로 초기에 진딧물을 방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김현란 과장은 "호박, 오이 등 박과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봄철 관리 잘 한 ‘뽕밭’에서 품질 좋은 오디 난다

- 유기물 비료 · 적절한 약제 사용...생산량 늘고 병해충 최소화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뽕나무의 수량과 품질을 높이고 병해충 피해를 줄이는 뽕밭 갈기, 비료 주기, 제초 작업 등 봄철 뽕밭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뽕밭 갈기= 이랑 사이와 그루 사이의 토양을 갈아엎는 작업으로, 잡초와 병균, 해충 피해를 줄여준다. 또한 굳은 토양이 부드러워지면 지열과 공기, 수분 침투가 쉬워져 토양의 풍화를 촉진해 뽕나무가 잘 자라도록 돕는다. 겨울눈이 트기 전에 갈아주는 것이 좋으며, 일부 뿌리가 잘리더라도 다시 자라기 때문에 10cm~20cm가량 작업하는 것이 좋다.
- 비료 주기= 뽕밭에 주는 비료는 뽕잎의 수량과 품질에 영향을 주므로 생육 단계에 맞춰 알맞은 양을 줘야 한다. 3월 하순께 뿌리 근처에 골을 파고 유기물과 화학비료를 한꺼번에 준 다음 흙으로 덮는다. 이때 비료는 1년 동안 주는 양의 40% 정도가 알맞다. 오디 생산용 뽕나무에는 누에 사육용 비료 양의 절반 이하로 주되, 퇴비, 계분 등 유기물 위주로 줘야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제초 작업= 올해부터 시행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따라 뽕나무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루 사이의 잡초는 손으로 뽑거나 제초제를 뿌려 제거한다. 제초제는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 사이에 2회 처리하면 잡초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두께 0.02mm, 폭 120~150cm인 검정 비닐로 좁은 이랑 위를 덮으면 잡초는 줄고 알맞은 수분 상태가 유지돼 뽕나무도 잘 자란다.

*출처 : 농촌진흥청

☀ 한국인 입맛 사로잡을 '느타리' 삼형제

- 감칠맛 나고 쫄깃한 '솔타리' · '맥송' · '백황' 품종 추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버섯인 느타리류의 우수한 품종을 재배 농가에 추천했다.
- 느타리류는 2017년 기준 국내 버섯 생산량의 약 58%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느타리 외에도 큰느타리(새송이), 아위느타리, 산느타리, 노랑느타리 등 종류가 다양하다.
-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하는 품종은 느타리 '솔타리', 아위느타리 '맥송', 아위느타리와 백령느타리를 교잡한 '백황'이다.
- 일반느타리 '솔타리' 품종은 병, 봉지, 균상재배가 가능하다. 갓은 짙은 흑회색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산 모양이며 잘 부서지지 않아 유통에도 편리하다. 특히, 대가 굵고 탄탄하면서도 조직이 질기지 않으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 큰느타리 변종인 아위느타리 '맥송'은 갓이 연백색이며 대가 더 얇고 길다. 큰느타리와 재배 특성이 비슷해 기존 큰느타리 농가에선 어려움 없이 재배할 수 있다.
- '백황'은 재배가 까다로운 백령느타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아위느타리와 중간교잡으로 육성된 품종이다. 저온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쫄깃한 식감으로 맛은 아위느타리보다 좋다.
- 이 세 품종은 종균업체에서 종균 구입이 가능한데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버섯과(☎043-871-5713)로 하면 된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원예작물 육묘장 관리, 1년 농사 좌우한다

- 시설 내부 · 외부 환경 관리, 해충 방제에 신경 써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작물 육묘기를 앞두고 건강한 묘를 키우기 위한 육묘장 시설 환경 관리와 해충 방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입구에는 이중문을 설치하고 살균 소독제가 포함된 매트를 놓아 병해충이 묘에 전파되지 않게 한다. 출입구와 옆으로 난 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해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를 매개하는 담배가루이의 침입을 막기 위해 50메쉬 이상의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충 서식지나 중간 기주가 되는 시설 주변의 잡초는 철저히 제거한다.
- 육묘 단계에서 발생하는 해충은 내부와 외부 환경 관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시설 내부와 바닥은 깨끗하고 습하지 않게 하며 작은뿌리파리, 갯파리 등 토양 매개 해충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으로 관리한다.
- 해충 피해를 입은 묘를 옮겨 심을 경우 2차 전염원 역할을 하므로 병해충이 확산할 수 있다.
- 눈으로 또는 황색끈끈이트랩으로 총채벌레류, 진딧물류, 가루이류 등을 예찰하고, 페로몬트랩을 설치해 나방류 발생을 조사한다. 확인됐다면 바로 약제를 뿌려 방제한다.
- 대상 병해충에 맞는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의 '농자재-농약-농약 등록 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국산 아카시아꿀·밤꿀 피부 수분 유지 효과

- 아카시아꿀·밤꿀의 뛰어난 피부 보습·미백 효과 -

- 벌꿀은 예로부터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어 클레오파트라라는 벌꿀로 목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장품의 소재로 널리 활용됨
- 국내 양봉농가에서 생산한 아카시아꿀과 밤꿀이 피부 보습과 미백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구명됨
-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각질층은 필라그린(filaggrin)* 합성 양이 줄면서 피부 장벽의 기능이 약화되고 보습은 줄어 손상으로 피부건조는 물론 아토피, 염증 등 각종 피부트러블 발생함, 벌꿀이 필라그린(filaggrin)* 합성을 돕는 것을 확인 됨



- 각질 형성 세포에 20μg/ml 농도의 국산 아카시아꿀과 밤꿀을 48시간 동안 처리한 결과, 벌꿀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필라그린의 합성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부 세포의 멜라닌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 내 기미나 주근깨를 형성하며, 심하면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함, 벌꿀이 멜라닌 생성량과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효소 활성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음이 확인됨
- 연구개발 :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한상미 063-238-2810
- 자료편집 :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출처 :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올 봄(3~5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농작물 저온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농진청, 지자체 등과 함께 농업인 지도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봄철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최근 10년(‘09~’18)간 총 9회 발생하는 등 상시화 되는 추세이며, 특히 지난해는 4.7~8일 갑작스런 기온 저하로 55천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 과수 등 농작물 생육기에 급격한 기온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 기상정보 및 작물별 피해예방기술 제공,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3.22~4.4 지자체 일선 재해담당자(2천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봄철 저온, 우박 등 농업재해로 피해 발생 시 농업인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거의 매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이상저온 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기관과 농업인에게 봄철 저온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여수시, 벼 해충 ‘먹노린재’ ‘방제첼저’ 당부

- 월동량 조사결과 전년 대비 20~30% 증가...산란 전 총력 방제 주문 -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농업인에게 벼 ‘먹노린재’ 방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 먹노린재는 벼 생육 기간에 발생해 수량과 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해충이다.
- 시는 지난 4일부터 7일간 먹노린재 월동 밀도를 조사했다.
- 그 결과 친환경농업단지는 먹노린재 개채수가 전년 대비 23.5%가 증가했고 일반단지는 37.5%가 늘었다고 밝혔으며, 올 겨울 따뜻한 날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먹노린재 이동량이 가장 많은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에 집중방제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 또 논물을 완전히 빼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고, 월동성충 산란·증식 전에 방제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시 관계자는 “친환경단지에서 유기농업자재 억제방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6월 초 모내기, 밀식하지 않기 등 재배적 방제와 남은 모판을 활용한 유인 포획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시에서도 예찰을 강화하고 발생정보 제공과 방제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여수시, 유용미생물(EM) 무상 공급

- 여수시민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서 수령 가능 -

- 여수시가 농업인 생산비 절감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유용미생물을 무상 공급한다.
- 시(시장 권오봉)는 일반 시민에게 리터당 300원을 받고 공급하던 유용미생물을 오는 18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유용미생물이 필요한 시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미생물을 판매하거나 방치하는 등 공익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급을 제한한다.
- 유용미생물은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 유익한 균을 인공적으로 배양한 복합미생물로서 악취와 유해가스 저감, 유기물 분해, 작물 뿌리 발근 촉진, 토양개량 등의 효과가 있다.
- 시 관계자는 “수요량 증가 추세에 따라 공급을 늘려갈 계획이다”며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659-4481)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나주시, 유기농 실천 및 논 타작물 재배 다짐 결의

- 나주시(시장 강인규) 지난 14일 제2청사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19 유기농 실천 및 논 타작물 재배 다짐대회’를 갖고, 농업인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식량 자급률 향상 등을 위한 굳은 결의를 다졌다.
-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대표, 쌀 전업농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 임원 등 농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친환경 농업발전 유공 시상, 유기농 실천 및 논 타작물 재배 다짐결의, 유기농 중심 친환경 농정 방향 설명,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 이현영 나주시친환경농업인 연합회장은 유기농 실천 다짐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로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유기농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으며, 이창호 쌀 전업농 나주시연합회장도 “쌀값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어, 참석자 전원은 ‘함께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 유기농 실천하고 논 타작물 재배 참여하자’라는 문구가 새겨진 수건 퍼포먼스를 펼치며 상호 결의를 다졌다.
- 행사에 참석한 위광환 나주부시장은 “오늘 다짐대회를 통해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쌀 값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특강 강사로 초청된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내 다양한 유기농 지원 시책을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
- 홍 과장은 “쌀 중심의 친환경 농업에서 과수, 채소 등 품목의 다양화, 물량보다는 품질 위주의 농정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나주시

담양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 담양군은 지난 20일 담양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오봉권)에서 미래천년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 담양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회장 오봉권)은 50여 친환경 농가로 구성된 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의 차별화와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며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오봉권 회장은 “21일 예정된 총회에 앞서 의미있는 일을 하고자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뜻을 모았다”며 “담양군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 모두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담양군

곡성군, 소규모 농가 저온 저장고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소규모 원예 재배농가를 위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소규모 원예 재배농가의 경우 유통망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아 생산한 농산물의 출하일정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또한 동종의 작물일 경우 수확 시기가 비슷해 한 번에 많은 물량이 출하될 경우 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도 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하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현재로써 유일한 방법이다.
-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시설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곡성군은 과수 및 채소 등을 재배하는 소규모 원예 재배농가들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한도는 저장고의 크기에 따라 9.9㎡(3평형)의 경우 6백만 원, 33㎡(10평형)의 경우 2천만 원까지이며, 곡성군에서 해당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 곡성군은 수확철이 다가오기 전인 6월까지 설치를 조기 완료한다는 방침 하에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연초에 사업 신청을 접수 받아 59명의 대상 농가를 확정했다.
- 군 관계자는 “농가와 시공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저장고 설치로 농가들이 원하는 출하시기를 조절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올해 축산 분야 보조사업 상반기 완료 목표 신속 추진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축산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등 70개 69억 원의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올해 곡성군의 축산 분야 주요 추진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53억 원, 가축분뇨처리 7억 원, 한우 송아지브랜드육성 4억 원, 축분 처리시설(스키드로더) 3억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1억 9천만 원 등이다.
- 군은 축산농가들이 하루라도 빨리 효과적으로 축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축수산분과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이미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 59억 8천만 원을 신청했고, 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중앙부처 방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명품 켄달로프 멜론으로 농가 소득 향상 기대

-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는 멜론을 지역 특화작물로 육성, 올해부터 향산화 기능이 뛰어난 켄달로프 멜론 시범재배에 나섰다.
- 군은 3월 초에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지난 18일에는 재배 관련 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된 교육에는 최초로 켄달로프 멜론 국내 품종을 육성한 최응규 박사가 강사로 나섰다.
- 켄달로프 멜론은 프랑스 아비뇽 지방의 대표 과일로 포도주, 코코아와 함께 프랑스에서 3대 장수식품으로 꼽힌다.
-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각종 가공식품 및 보조식품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켄달로프 멜론은 항산화물질의 함량이 매우 높아 유럽 지역에서 장수식품으로도 꼽힌다.
- 국내산 켄달로프 멜론의 경우 향산화와 피부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 함량 분석 결과 100g당 1,600mg를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는 일반 머스크 멜론과 비교해 약 80배 이상 높은 함량이다. 따라서 건강에 좋은 기능성 과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 곡성군의 멜론 재배면적은 약 180ha의 규모로 군 농업인 소득 1위를 차지하는 작물이다. 군은 기능성이 가미된 켄달로프 멜론의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을 더욱 향상시키는 한편, ‘멜론하면 곡성’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해남군, 친환경 농업 유용미생물 무상공급‘호응’

- 해남군이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해남군은 유용미생물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내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을 운영, 연간 600톤 규모의 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 유용미생물은 축사 악취와 유해가스를 줄이는 질화세균을 비롯해 토양의 부패균과 병원균을 없애고 떼알구조로 바꾸는 고초균, 유기산 생성으로 비료 효율을 개선하고, 뿌리 발육 촉진하는 유산균, 악취 제거와 식물 잔여물 분해에 탁월한 효모균 등 총 6종을 생산하고 있다.
- 특히 올해부터는 1일 3톤 규모로 BM 활성수 농가 공급을 시작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BM활성수는 유용미생물(Bacteria), 광물(Mineral), 물(Water)의 공생관계를 재현한 자연순환시스템을 활용해 천연암석으로부터 미네랄을 추출·농축해 생산된 물로, 생명체에 유익한 각종 영양소가 다량 함유돼 있다.
- 토양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해 토양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고품질 다수확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BM활성수를 축산 사료와 급수에 첨가하면 소화율이 향상되고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등 해충번식을 억제해 축사환경 개선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출처 : 해남군

함평군 “농작물 저온피해 대비하세요”

- 함평군(군수 이운행)이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기상청 관측정보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기온이 평년대비 1.2℃ 높고 향후 2개월간도 평년보다 기온이 다소 높을 것으로 보여 올 봄 개화시기가 1주일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는 기온이 올라 꽃눈이 발아하거나 개화가 된 상태에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 발생되며, 특히 열매를 수확하는 과수분야에 큰 피해를 입힌다.
- 이에 따라 군은 각 농가에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가온 보온 조치를 협조 요청하는 등 농작물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먼저 농업재해 피해 농가에 농작물 피해 복구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농약비용과 대체파종비용을 지난해보다 인상된 단가를 지원한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제도로, 1000㎡ 이상 면적에 과수를 재배하는 농민이나 농업법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특히 올해부터는 사과·배·단감·뽕은감 등 과수 4종의 봄철 저온피해 관련 보장 특약이 주계약에 포함되면서 태풍, 우박, 지진, 화재는 물론, 해마다 반복 피해를 입고 있는 한파 꽃눈 피해, 햇볕 데임 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 출처 : 함평군

장성군, 과수 화상병 없는 청정지역 지킨다

- 화상병 예방 특별교육...279ha 분량 예방약제 무상 공급 -

- 장성군이 사과, 배나무의 AI라고 불리는 ‘화상병 없는 청정지역’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펼친다.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4일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 ‘과수 화상병’은 잎, 줄기, 가지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말라 죽는 과수 전염병이다.
- 과수 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시에서 처음 발병되어 지난해에는 충북 충주시, 강원도 평창군, 원주시 등에서 34.3ha까지 확산되어 여러 시군과 농가들이 골머리를 앓았다.
- 이에 장성군은 지난 3년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약제를 지원하는 등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며 화상병으로부터 과수 농가를 지켜왔다.
- 군은 올해도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과수원 관리요령과 올바른 약제사용 방법을 알렸다.
- 교육이 끝난 후 농가들에게 화상병 예방약제를 공급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가는 지역단위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약제를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군은 철저한 화상병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을 과수 화상병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여, 총 면적 279ha 방제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장성군

완도군, 친환경 약제를 이용한 칩덩굴 제거 총력

-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산림경관을 저해하고 가로수 생육을 방해하는 칩덩굴 제거를 위해 전문작업단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 2억 2천 3백만 원으로 칩덩굴 전문제거작업단 7명을 선발하여 새순이 움트는 3월부터 10월까지 물리적 방법과 칩덩굴 제거 밴드, 블록 등 친환경 약제를 이용해 주요 관광지, 도로변 가시권 내에 생육하는 칩덩굴을 우선적으로 제거한다.
- 특히 칩의 특성 상 번식력이 강하고 생장이 왕성하여 단기간 내 완벽한 제거가 어려워 매년 반복적으로 칩덩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기존 방식과 병행하여 식물의 독성 단백질을 활용한 친환경 약품인 칩덩굴 제거 밴드와 블록을 사용하게 된다.
- 칩덩굴 제거 밴드와 블록은 칩 줄기에 껍질을 벗겨 밴드를 감거나 구멍을 뚫어 직접 삽입하는 방법으로 뿌리를 굴취 할 필요가 없이 사면 훼손, 토양 및 수질오염을 막고 주거 연접 지역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
- 또한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칩덩굴 제거 밴드와 블록 개발업체를 통해 시연회를 실시하고 작업단에게 제품 설명,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었으며 시공 방법이 익숙해질 때까지 현장에 머물며 지도토록 했다.

* 출처 : 완도군

베트남 돼지열병 현황 및 소비시장 변화

- 베트남 돼지열병 발생 현황 -

- 2019년 2월 1일 북부 흥 인(Hung Yên) 성에서 첫 발생
 - 대부분의 발생 지역은 북부이며, 관광지역으로 유명한 하롱베이 및 수도 하노이 도심에서도 발생
 - 3월 2째주 기준 총 9개 성으로 확산

- 폭락하는 돼지 가격 -

- 베트남 남부지역까지 확산되지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돼지 가격은 폭락돼지열병 확산 전('18.12월 기준)과 확산 후('19.2월 기준) 가격 변동
 - (남부) Kg당 48,000~52,000 → 45,000동 / 가격 소폭 감소
 - (중부) Kg당 45,000~50,000 → 44,000~48,000동 / 가격에 큰 변화 없음
 - (북부) Kg당 45,000~46,000 → 35,000~37,000 / 가격 대폭 감소 및 판매량 감소
- 가격하락의 주요 원인은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구매심리 변화와 조기 출하(당초 110-120kg 거래 → 80-90kg 거래)에 있음

- 호치민시의 돼지 열병 대응 -

- 호치민시는 일 약11천 마리의 돼지(약 750-800톤)를 소비하며, 대형 식품 업체인 Vissan에서 약 10%가량을 1,000개의 유통업체에 공급

- Vissan은 1970년대부터 가축도살 분야에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생산,가공 및 육류 제품, 유제품, 가공류, 해산물 및 냉동무역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음.
- Vissan과 같은 대형 식품업체에서는 냉동창고 추가구매를 통한 안전성 강화와 열병 발생 시 반경 3km 이내의 관련 상품 판매·배송 중단을 약속함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현재까지 돼지열병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가축 농장의 위생,검역 주의가 필요함을 공지함

- 돼지고기 대체, 닭고기 소비 증가 -

- 북부지역에서 돼지열병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하노이 지역에서 돼지고기를 기피하고 구매시에도 원산지에 대해 명확히 기재된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임
-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 오리고기를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과거 시장에서 고기를 주로 구매하였다면 돼지열병 확산 이후, 원산지가 정확히 표기된 슈퍼마켓에서 고기를 구매하는 고객 증가

- 시사점 -

- 돼지열병은 인체 전염이 없어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음
- 특히,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하면서 닭고기 소비가 크게 늘어 수요가 늘 것으로 보임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3. 25. 시카고 선물거래소)

- 옥수수 선물가격, 홍수 피해에 대한 우려로 상승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1%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후반 세션 차익실현으로 인해 하락세로 마감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강세와 보다 광범위한 상품 시장 매도로 인한 과도한 압력은 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봄 밀 선물은 북부 평야 봄밀 재배지역에서 폭설과 홍수의 발생으로, 특히 최고 생산지인 노스다코타의 모내기 지연에 대한 우려로 뒷받침되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5%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중국 및 미국 중서부 지역의 홍수에 따른 대규모 수출매입으로 봄철 모내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요일 최고가로 상승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7%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달러 회사들과 남미 농부들이 풍작을 예상함에 따라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로 금요일 세 차례에 걸쳐 하락세로 마감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산 대두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시장을 뒤흔들었다. 미국 농무부는 다음 주 금요일 농장의 예상 경작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전남농기원, 기능성 차나무 우량 묘목 분양 신청

- 참녹, 보향 품종 등 5만주 선착순 분양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차산업연구소가 개량 육성한 차나무 신품종 묘목 5만주를 3월18일부터 29일까지 선착순 분양한다고 밝혔다.
- 대상 묘목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카데킨 함량이 많은 참녹, 홍차용으로 인기가 높은 보향 품종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 차나무는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과 다양한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는 천연 건강식품자원으로 마시는 차 뿐만 아니라 분말차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과자류 등 식품 가공원료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더 나아가 향암, 향당뇨, 향염, 향알러지, 미세먼지 배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기능성물질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가치가 매우 높아 미래 유망 소득 작물로 뜨고 있다.
- 전남농기원은 15종의 신품종을 육성하여 지난 2015년부터 우량 묘목을 농가에 보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품종 개발과 우량묘목을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과 차산업 활성화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 기타 차나무 재배, 가공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분양신청은 차산업연구소 (061-853-5155)로 문의하면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다채로운 우리 술 만나는 자리 마련한다

- 농촌진흥청 기술 이전으로 산업화 한 전통주 12종 특별 전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에서 개발한 기술로 상품화 한 우리 술이 19일부터 24일까지 전통주 갤러리(서울시 강남구)에 전시된다.
- 특별 전시 기간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복원한 전통주 2종과 청량감을 극대화한 탄산막걸리 등 모두 12종의 제품을 맛 볼 수 있는 시음회도 진행한다.
- 이 중 '아황주'와 '녹파주'는 농촌진흥청의 '우리 술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복원한 전통주로, 조선시대 요리책인 「산가요록(山家要錄)」 등 옛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전통 술이다.
- 또한, 누룩 유래 토착 발효 미생물을 활용해 빚은 한국형 청주와 증류식 소주, 쌀을 활용한 쌀맥주, 무독화 율술,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고품질 와인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 전시장을 찾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색과 향, 맛 등 기호도 평가를 진행하며, 우리 술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발효가공식품과 송금찬 과장은 "우리가 개발한 전통주를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특별전시와 시음회를 계기로 성과 확산과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에 특별 전시가 열리는 전통주 갤러리는 다양한 우리 술을 알리기 위한 체험·홍보 공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개관해 운영 중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 현장 문제, 맞춤형 상담으로 해결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2019 식량작물 맞춤형 컨설팅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식량작물 재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하기 위한 '2019 식량작물 맞춤형 컨설팅(상담)'에 나선다.
- 종합컨설팅은 지역 작목반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정보를 집중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다.
- 요청 분야에 대한 기본 교육과 함께 시기별로 품종, 재배, 병해충 관리, 마케팅 등 전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 전문컨설팅은 요청 분야 교육, 공통 관심사에 대한 공동 컨설팅, 방문 요청 농가의 현장 상담으로 이뤄진다.
- 품종, 재배 관리, 병해충 관리, 기계화, 수확 후 관리, 경영·마케팅 등 분야별 상담사의 교육과 묻고 답하기를 통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 현장 상담은 농가를 찾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며,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담당 부서에 정밀 진단을 요청해 해결한다.
- 농촌진흥청의 식량작물 맞춤형 컨설팅 수요는 해마다 연말에 조사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063-238-5387)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맞춤형 교육으로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 참가자들, "경쟁 · 소통하며 쌀 산업 미래 보탬 될 것"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기르고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마련한 '스마트농업 심화 교육 과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지난해 '청년농업인 쌀 산업 핵심 역량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열렸다.
- 교육 과정은 드론 활용 관련 법규, 드론 시뮬레이션과 현장 실습, 청년농업인 우수 사례 발표, 쌀 품질 고급화와 소식 재배 등으로 수료생의 요구가 많은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 특히, 인기가 많았던 드론 교육은 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졌다.
- 농촌큐레이터, 유튜브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농업인 사례 발표 시간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기회도 가졌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충섭 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쟁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에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도 로컬푸드 안심하고 드세요’

- 잔류농약 검사비,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2억6800만 원 -

-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 전라남도는 현재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 23개소를 대상으로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지난해 대비 2배가 늘어난 2억 6800만 원을 지원한다.
-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320개 항목의 잔류농약을 검사한다. 출하 전 잔류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유통판매 금지 및 폐기 처분한다.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국산 또는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 전라남도는 로컬푸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전문 분석기관 등에서 월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수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로컬푸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우수 종묘 보급기반 조성 잔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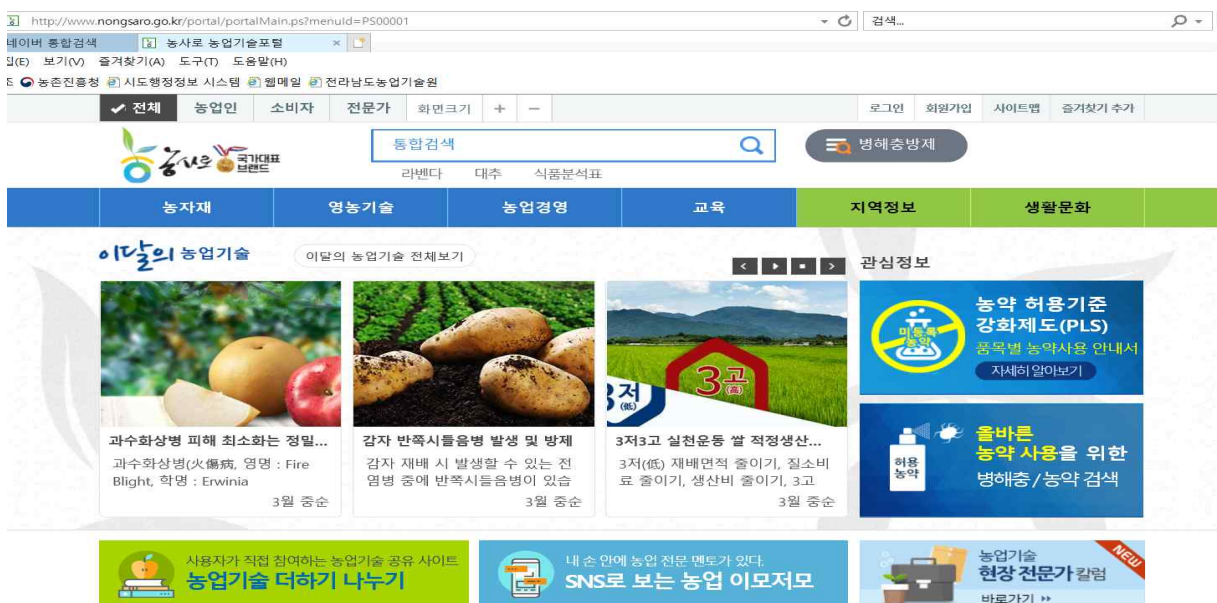
- 농식품부 공모에 영암 고구마 담양 딸기 등 2곳 선정돼 15억 확보 -

- 전라남도는 우수 종묘 증식보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사업 공모에서 2개소가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사업 공모는 총 30억 원을 들여 종묘 생산과 품질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국에서 치열한 경합을 거친 결과 전라남도는 사업비의 절반인 15억 원을 확보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고구마 종묘의 병해(바이러스) 위험성을 낮추고 품질 향상에 필요한 조직배양실을 설치하게 된다. 품질관리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담양군농업기술센터는 딸기 우량묘 증식 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죽향, 담향, 메리퀸 등 자체 개발한 품종의 순도 유지와 안정적 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아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사업은 고품질 신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전남지역에서 우수 종묘를 생산해 안정적으로 농업인에게 공급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농촌진흥청 농사로

- 농사에 필요한 농업관측은 농촌진흥청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농사로에서는 농자재, 영농기술, 농업경영, 교육, 지역정보, 생활문화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업경영에서는 농산물소득정보, 우수사례, 경영기술, 농식품소비트렌드, 농축산물가격, 경제성분석기준자료, 농가경영관리프로그램, 농식품산업동향,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관측정보에서는 년도별로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버섯,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 농사에 필요한 농업관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www.aglook.krei.re.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는 농업관측, 관측연구 발간물, 품목동향, 소비정보, 알림광장, 본보소개, 농업전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업관측에서는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버섯, 관측속보, Daily&Weekly를 해당년도와 월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엽근채소는 배추, 무, 양배추, 당근
 - 양념채소는 건고추, 양파, 마늘, 대파
 - 과일은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수입과일
 - 과채는 오이, 애호박,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풋고추
 - 축산은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 곡물은 쌀, 콩, 국제곡물, 감자
 - 버섯은 느타리, 양송이
- 품목동향에서는 가격&반입량, 도매가격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 가격&반입량에서는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등
 - 도매가격동향은 품목별로 전일가격, 당일가격, 등락률 등
- 알림광장의 관측동영상에서는 농업관측을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품목	가격		전일대비 등락율(%)
	전일	당일	
양송이	17,555	19,179	9.3
풋고추	49,294	47,565	3.5

청렴한세상 - 자물쇠 하나도 돌려준 청백리



익산군수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말한 필을 쏘싹히 타고 와서 아무도 그가 태수인지 몰랐다는 청백리 각안방 선생. 임기를 마치고 짐속에 관아의 자물쇠가 섞여 들어왔는데 그 마저도 다시 먼길을 돌아 관아로 돌려보낸 일화를 가질, 그는 백성들에게 어진 마음으로 다가선 군수로 그 업적을 인정받아 백성들이 살아있는 태수나 현감에게 지어주었던 생사당을 지어 침송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VOL. 226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